



행복마을 동사설 합양 본원. 2013년



동사섭소식지
2015년 봄
통권 15호

발행일 : 2015년 3월
발행처 : 재단법인 행복마을
발행인 : 용타 스님
편집 : 행복마을 동사섭 서울센터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SK건설 2층 행복마을 동사섭
02-3499-1016

디자인 : 슬로우슬로우컵ssq
인쇄 : 예지커뮤니케이션

* 이 회보는 회원용으로서 비매품입니다.
* 이 회보는 회원들의 성금으로 제작됩니다.

편집후기

동사섭 소식지를 서울센터에서 만들기로 했다. 쉽지 않은 일일 텐데 하는 조바심이 생겼지만, 의욕도 생겼다. 그러나 글 선택에서부터 편집에 이르기까지 신경 쓰이지 않은 부분이 없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제껏 소식지를 만들어 오신 함양센터 담당자님께 감사한 마음이 일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지금껏 온라인 소식지는 지속적으로 발간된 데 비해 오프라인 소식지는 부정기적이었다. 여러 사정이 있었으리라. 그러나 이제는 계간지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행복마을 동사섭>의 소식을 알리게 될 것이다. 이번 호에는 큰스님 글과 책 소개 및 동사섭 공부과정의 소감문을 넣어 그 틀을 유지했고 특별한 것은 동사섭 도반이신 [선혜 님과 선광 님의 대답]을 실었다. 이후로 동사섭 식구의 대답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쉬어가는 페이지'를 곳곳에 두어 도반님들의 '느낌에 깨어있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 이제 계절이 시작될 무렵이면 도반님들이 이 소식지를 받으시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뜻 윤석우 님

15년 봄호 소식지를 행복마을 서울센터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진행이 수월하지만은 않아서 약간의 부담감도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그 점이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중급·고급과정 등 여러 소감문을 읽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과 깨우침을 얻은 것 같습니다. 특히 춘철님의 소감문 중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존재의 현상만을 보는가 아니면 존재 현상 그 이면에 있는 원리까지 볼 수 있는가?'라는 문장이 와 닿았습니다. 저 또한 존재의 현상만을 보고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소식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수고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행복마을 서울센터와 함양 수련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예상하는 시간에 출간이 되어서 기쁩니다. 동사섭 가족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초심 최영근 님

2015 봄

차례

책머리에	대원大願	06
쉬어가는 페이지	계절을 느끼는 음악 「Spring」	14
명상칼럼	시작始作	16
동사섭 소식	2015년 동사섭 연간일정	20
	동사섭 회원 사이트/ 페이스북/ 용타스님 블로그	22
	<월례정진>	24
	<상주모임>	26
소감문	일반과정	28
	중급과정	30
	고급과정	34
	한국윤리경영학회 및 인품포럼 대상 미니동사섭	36
쉬어가는 페이지	<목련쌍치도木蓮雙置圖>	38
큰스님 책 내용	『10분 해탈』 제1장, '생활이 곧 수행生活即修行'	40
큰스님 동정	용타 큰스님 동정	45
쉬어가는 페이지	권장도서	46
회원 탐방	동사섭인의 향기	48
공부모임 안내	<수심장>	56
쉬어가는 페이지	스마일 갤러리	58
고마운 마음	행복마을 후원금 현황/ 안내	60



大願

거울
용타 스님

오늘은 이상공동체 5요인 정체, 대원, 수심, 화합, 작선 중에서 대원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대원이 무엇이지요? 큰 바람, 큰 소망, 큰 희망... 즉, 크고 크게 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대원,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돈이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거나, 또 젊은 친구들이라고 하면 ‘난 아무개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성취되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서 그냥 돈 100만 원을 원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대원이 있습니다.

우주가 있습니다. 지구는 참으로 우주의 부분집합 중의 부분 집합입니다. 우리의 은하계에는 지구를 품고 있는 우리 태양계와 같은 그런 태양계가 2,000억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그러한 은하계가 또 2,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는 가히 무한에 가까울 만큼 크지요. 그런데 나는 대원이라고 하면, 우선 그 우주가 마음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한 우주에 있는 존재들, 유형·무형, 유정·무정의 모든 존재들의 행복 해탈과 맑고 밝은 상생기운을 빌게 됩니다. 그것이 내 대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너무 관념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의 경우는 대단히 구체적이예요.

여러분들의 의식은 훈련시키기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가능성을 가진 의식을 실패와 같은 좁은 울타리 속에 묶어놓고 그것이 자기 의식 세계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들 삽니다. 이 자리는 주장자를 내리치면서 얘기해야 할 자리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의식과 대결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의식은 무한이지만 우주는 유한이기 때문입니다. 무한 우주인 듯이 느껴지는 그 우주를 부분으로 싸안고 있는 무한히 큰 세계가 우리의 의식인데, 어찌해서 그 의식을 좁히고 좁혀서 쓰고 있느냐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의식은 늘 깨뜨려져야 합니다. 깨뜨려지면 의식은 움직이고 변화,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대원이 여러분들의 의식을 깨뜨리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대원으로 지금부터 의식을 열어가 보십시오. 의식을 열고 또 열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열어가는 것일까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 가족만을 생각하면서 1년 살고, 2년 살고... 10년, 20년 살아서 60대가 되었다 합시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보기에서는 가난하게 보이고, 못생기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보듬고, 세월호를 가슴 아파하고, 9·11테러를 크게 안타까워 하고, 나아가 풀 포기 하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 그 두 사람 사이의 인품 차이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이 마음의 가능성은 가히 무한입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마음으로 그렇게 제 가족만 생각하는, 가없도록 비좁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 참으로 유감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내 마음을 열고 열어서, 보다 지고한 데로 나아가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대원을 통해서도 그리 나아가리라 하고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금강경 정종분(正宗分)을 보면 부처님의 상수 제자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질문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수많은 남자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발심을 크게 하여 이 마음을 최고의 경지인 니르바나 경지에 이르리라 하고 마음을 내고 있습니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자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남선녀가 니르바나에 가기 위해서 마음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질문이 참으로 좋구나. 내가 답을 할 터이니 잘 들어라.”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3가지로 답을 하십니다. 그 첫째가 “9류중생을 모두 제도하여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 하고 서원하라는 말씀입니다.

‘9류중생’이란 이 무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입니다. ‘내가 그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완벽한 니르바나의 경지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서원하는 것이 제1조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도하라’가 아니라 ‘제도하리라’ 하고 발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어 선생님이 6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나는 내 처자식을 부양하느라고 너희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합니다. 또 다른 선생님은 ‘너희들 진정으로 행복하거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영어도 필요할 거야~ 그래서 지금 영어 공부 하는거야.’ 합니다. 바로 이 마음, 이것이 대원심이란 말입니다. 여기서의 방점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지고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랑이 되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대목입니까! 이것이 해탈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원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라는 것일까요? 온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하는 이것이 구호로만 있자는 것은 아닙니다. 구호 하나를 딱 세우는 자체가 해탈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그 구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 행위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육바라밀을 삶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반에 이르기 위한 제2의 조건입니다. 제1조건은 바로 서원이요, 제2조건은 보살도菩薩道에서 닦아야 할 여섯 가지 덕목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섯 덕목을 실천하되 ‘생색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강경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원을 실제로 행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행으로 옮기는 방법, 즉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대원의 마음이 인품화가 될 수 있을까요? ‘맨 소리가 참 소리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맨 소리가 참소리 된다. 맨 마음이 참 마음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나 하면 맨 소리를 열 번 하고, 백 번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인품이 그 맨 소리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소리는 자꾸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또 맨 마음을 반복하면 그 맨 마음이 참 마음으로 변하는 법입니다. 곧, 대원의 마음을 거듭거듭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 해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은 모두의 행복을 위하는 마음이 들진 않지만 ‘모두 행복해지소서’ 하는 마음만은 옳지 않은가? 이렇게 되면 다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 행복해지세요’ 하는 이 소리가 참 소리일까요, 맨 소리일까요? 그런데 ‘모두가 행복해지소서, 모두가 행복해지소서’를 반복해 보라는 것입니다. 반복하다가 보면 점점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모두의 행복을 고려하는 의식 상태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러한 변화의 증인입니다. 무한우주를 보듬을 때, 완전히 관념론이었지요. 물론, 나 자신과 내 공동체를 보듬는 정도는 쉬웠지만, 뭐, 미국이나 멕시코 정도까지 보듬는 것도 좀 관념적이었어요. 좋은 마음이 한 자락 있으면 그 마음을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맨 소리가 좋은 소리라면 그 소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이 천재를 낳는 법입니다. 이 말은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카알라일 Thomas Carlyle의 말입니다. 반복이 천재를 낳는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대원지심을 어떻게 함양시킬 것인가 그 방법은 대원기도를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대원의 기도를 거듭하다 보면 0.1g도 안 되던 진정성이 점점점 솟아나서 1g의 진정성으로, 2g의 진정성으로, 나아가서는 톤 급의 진정성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묘수가 없습니다. 반복입니다. 그 생각, 그 소리를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를 구하리라. 아마도 기독교 쪽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 쪽에서도 맞는 말입니다. 말씀이 그대를 구하게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의, 대원의 진정성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질^質만 높일 것이 아니라 그 양^量도 넓혀가는 것입니다. 내 가정으로부터 내 직장으로, 내 직장에서부터 지역사회로, 지역사회로부터 나라권^國으로 넓혀 가는 것입니다. 나라권 정도 갔다면 지구까지는 금방 넓혀집니다. 지구까지 넓혀졌다면 지구의 풀 포기들까지 넓혀집니다. 그런 식으로 넓혀가는 것도, 넓혀서 기도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냥 됩니다.



넓히는 방법 한가지를 말씀 드려볼까요? 지구 사랑법으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 위에 나라가 몇 국가나 있을까요? UN 가입국은 192개국입니다. 그래서 한 200개 정도 나라를 우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딱 펴놓고 그 200개 정도 되는 나라를 짚어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처음으로 하여 시작합니다. 북한도 UN 가입국이 됐으니 국가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속으로 반야심경을 암송하듯이 200개 나라를 빙글빙글 돌리며 외워 갑니다. 대~한~민~국, 북한, 일본, 중국, 몽골, 티베트, 대만, 베트남... 이런 식으로 200개 국가를 외우며 돕니다. 이렇게 지구 위의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돌아가면 그 나라들이 마치 내 새끼들 같이 여겨집니다. 지구는 내 새끼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200개 나라를 한번 암송해보시면 여러 공덕이 있을 것입니다. 대원에서는 그 양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원의 질과 양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대원지심 훈련 방법으로는 기전향^{起傳向}이 좋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일본사람들 행복하세요~ 하는 것보다 내가 내 속에서 기운을 끌어올려 일본을 향해 그 기운을 보내면서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기~전~향~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기^起'는 '일으킬 기'입니다. 기운을 끌어올려서 기운을 전합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傳~ 하며 나의 사랑을 전달받은 대상이 향^向, 항상되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때, 기전향이라는 제스처를 활용해보세요. 아주 좋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내 가정, 내 직장부터 그것을 시작합니다. 우주를 생각한다면 가장 좁은 우주가 어디일까요? 바로 내 가정과 내 직장입니다. 내 가정, 내 직장부터 천국으로 만들리라 해보십시오. 내 가정, 내 직장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면서, 뭐 대원지심 해가면서 우주 어찌고 하게 되면 그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심한 관념론이 되겠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 두 사람이 살면 두 사람, 다섯 사람이 살면 다섯 사람.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일까 사유해보면 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용타 스님에게까지 찾아오지 않더라도 답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또 동사섭 프로그램 전부가 그 답이 되기도 합니다.

새봄입니다. 곧 새싹이 돋고 꽃이 필 것입니다. 새싹이나 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 속에 이미 새싹이 되고 꽃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근본 마음이 잠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서 그 가능성을 꽃피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지구 위에 부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우리 속에 이미 부처님이 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무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의 마음을, 본래 청정하고 본래 부처인 우리의 무한한 의식을 이기심이라는 편협한 지옥 굴속에 빠뜨린 채 아무것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몇 번을 생각해도 억울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을 니르바나로 인도하는 대원지심을 자꾸 반복해 보십시오. 맨 소리를 반복하는 것, 그것은 줄곧 불어오는 봄바람이 얼어붙은 땅속의 새싹을 불러일으키듯이 우리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대자대비심을 흔들어 깨우는 노크 소리가 될 것입니다.





봄이 오는 소리
민감하게 듣는 귀 있어
쌓인 낙엽 비집고
종긋종긋 노루귀 핀다
한 떨기 조출한 미소가
한 떨기 조출한 희망이다

지도에도 없는
희미한 산길 더듬는 이 있어
노루귀에게 길을 묻는다.

최두석 시인 <노루귀>

계절을 느끼는 음악

Ludwig Van Beethoven 「Sp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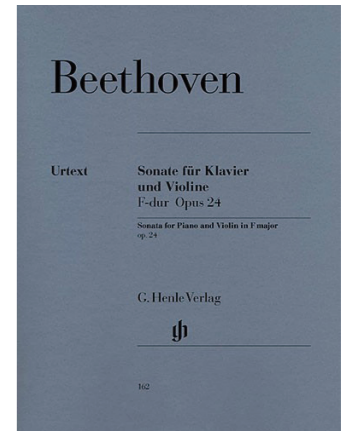
번갯불 이치훈 님



추운 겨울 동안의 걱정과 불안을 비웃듯 봄은 어느 날 아침 문득 우리 머리 위를 따스하게 비취오겠지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빙- 돌고 다시 돌아와 우주의 만물을 잠에서 깨우듯, 우리 마음을 봄과 함께 설레게 해줄 음악을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그 곡은 곡명마저 '봄'인 Ludwig Van Beethoven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Spring」입니다. 이 곡은 베토벤은 바이올린 소나타 총 10곡 중 5번째 곡으로, 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서 가장 유명하지요. 대체로 무겁고 어둡고, 웅장한 곡이 많은 베토벤의 곡들과는 달리 「봄」 소나타는 밝고, 맑은 느낌을 안겨줍니다. 베토벤의 곡들에 제목이 붙은 것은 대부분 후대에 출판사에서 표제를 붙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곡 역시 「봄」이라는 표제는 자신이 붙인 것이 아니라 후대에 출판사에 의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곡을 들으시면 대부분 '아름다운 봄의 지저귐'보다는 '약동하는 봄의 소리'를 '새싹이 움트는 썩썩한 풍취'를 느끼실 것 같네요. '겨울잠에서 깨어나 바쁘게 봄을 맞이하는 자연의 분주함'을 느끼시기에 제격인 곡 같습니다. 참, 클래식 버전이 어려운 분들께는, 저도 그래서 가끔 자주 즐겨 듣는 Thomas Hardin Trio의 『재즈로 듣는 클래식』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베토벤: 봄 소나타」 재즈 버전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봄은 어떠신가요?



Thomas Hardin Trio 『재즈로 듣는 클래식』

시작始作

한뜻
윤석우 님



입춘이다. 바야흐로 봄 문턱에 들어섰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첫 절기이니 진정한 한 해의 시작인 셈이다. 금세 봄 기운이 느껴진 듯하다. 봄이 오면 기운이 오르고, 대지가 푸르게 뒤덮이고, 울긋불긋 꽃들이 다투어 피어난다. 마음도 조금 들뜬다. 항용 입춘일이면 집안에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춘대길 立春大吉’, ‘건양다경 建陽多慶’ 등의 어구를 집 안팎에 붙인다.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작은 중요하다. 시작을 잘해야 행복해 질 수 있기에 그렇다. 행복한 시작을 위해서 용타 큰스님께서는 ‘인생 3박자’를 말씀하셨다. 행복을 위한 첫걸음인 셈이다.

삶은 어떤 일을 단행하며 시작된다. 단행이란 시작의 다른 말일 수 있는데 용타 큰스님께서는 그것을 ‘저지르라’고 하셨다. 쉬이 말하면 어떤 일을 단행하고 몰입하고 돌파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개 삶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한다. 당연히 주춤거린다. 그러다 보면 놓치게 된다. 어쩌면 삶은 기회의 파도를 타는 것일진대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나에게도 그런 시기가 두어 번 있었다. 진행 과정의 곤란과 부모·형제의 만류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미루기 일쑤였다. 그러다 세월이 흐르니 안타까움으로 후회하였고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 행복지수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단행하지 않은 생각은 의미가 반감된다. 그것이 옳다 생각된다면, 그것이 내 삶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감행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해 보면 그때가 빠른 때이다. 지금도 나는 영어회화만 생각하면 가슴을 치며 후회한다. 30살 시절에 영어 학원에 다녔다. TOEFL 공부를 위해 방학 때면 으레 영어학원에 등록하곤 했었다. 그랬더니 원장이 회화반에도 나와 함께 공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회화반은 대학생이 주축이었다. 그 젊은 학생들 속에 끼어, 되지도 않을 영어를 버벅거릴 일이 창피스러워 나가지 않았었는데, 그 결과는 참담했다. 그 후로 영어회화가 두어 번 내 발목을 잡고 말았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대학생들과 나이 차도 나지 않았을뿐더러 그들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때 과감히 용기를 내어 열심히 노력했다라면 회화의 단초를 잡았을 터고, 몰입했다라면 돌파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단행하고 난 후에는 걸리적거리는 것을 제척야 한다. 큰스님께서는 안 되는 것에 매달리지 말라셨다. 나는 50 중반에 이르러서야 성악 공부를 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 성악 레슨을 받고 싶었지만, 가정 사정상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때 하지 못한 것을 50 중반의 나이에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아파트 대출금과 아이들의 학비를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압박감은 벗어버리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과감하게 레슨을 신청했고 열정을 쏟았다. 기껏 30분에서 한 시간 남짓 하는 공부였지만 소리 내는 법을 알고 호흡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소박하게 시작한 쾌감을 느껴 행복했다. 그간 많은 것을 망설이고 주저하며 단행하지 못했는데 과감하게 제척 버리자 시원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염려 사항은 떨쳐버려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불상사는 만들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이룰 수 있다.



단행하지 않은 생각은 의미가 반감된다.

그것이 옳다 생각된다면,
그것이 내 삶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감행해야 한다.

저지르고,
걸리적거리는 것은 제치고,
된 것은 누려야 한다.

바야흐로
봄이지 않은가.

그리고 된 것은 누려야 한다. 되지 않은 것에 미련 두지 말고 된 것을 누려야 하는데 많은 이들이 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된 것조차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된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된 것의 의미가 희석되는 법.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다. 아마 된 것을 알면서도 된 것은 된 것으로 젓혀두고 되지 않은 것에 다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아주 작은 것도 꺼내서 누리면 그 즐거움은 배가되는 법이다. 십수 년 전에 몽골 여행을 간 적이 있다. 드라마 작가 한 분도 함께 했는데 토속적인 기념품을 사고는 돌아오는 버스에서도 꺼내어 오래도록 보고 또 보곤 하셨다. 대개는 기념품을 사면 곧장 가방 속에 집어 넣어두기 마련인데 그분은 꺼내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셨다. 그러면서 주변 분들께도 동의를 구하셨다. 이거 보세요. 참 좋지 않아요? 그러니 주변에서는 기쁘게 응대했다. 참 좋네요. 몽골 색깔이 잘 드러나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어찌면 그렇게 물건도 잘 고르세요. 그들의 추임새에 기념품은 더욱 귀한 존재가 되었고, 그분은 기분이 매우 좋아지셨다. 이미 가진 것, 있는 것에 대한 예의이기도 한 방법이다. 그 후로 나도 여행을 가면 그렇게 하곤 한다. 하물며 그것이 마음인 바에야. 내가 선택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마음껏 즐긴다는 것은 가진 것, 있는 것을 누리는 멋진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바야흐로 봄이 왔다. 첫걸음이다. 한 해의 계획을 세우기 마련인데 그 계획이 유명무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지르고 제치고 누려야 한다. 계획을 세워 놓기만 하고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 향기는 사라지게 마련이고 누리지 않으면 그 의미는 반감된다. 봄의 향기가 여름을 지나 가을을 거쳐 겨울이 될 때까지 그윽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작하며 저지른 것에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고 꾸준히 누려야 한다. 온 대지를 휘감고 있는 화사한 이 봄기운이 오래오래 함께하시기를 기원한다.



동사섭 소식. 둘

동사섭 회원 사이트

동사섭 회원공간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책갈피(즐거찾기)에 등록해 두셨다면 새롭게 단장한 화면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주소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member.dongsasub.org

기존 회원분들은 새로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면 준회원이 되는데, 정회원이 되기 전까지는 홈페이지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dongsasub@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정회원으로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고한 행복을 위하여...

동사섭 소식. 셋

동사섭 페이스북



동사섭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ongsasub>

행복의 원리, 지고한 인품, 동사섭을 통한 향기로운 삶을 기원하며 행복마을의 주요 소식과 행사 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소식을 찾아 전해 드리며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용타스님 블로그



용타스님 블로그 <http://blog.naver.com/yongtah>

돈망 안내와 거울님의 일상의 생각들을 정리하여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자! 어머세요" 하는 큰스님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이 공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공(○)표치기를 하고 계시는 거울님의 모습이 보일 것만 같은 이 공간. 이웃 블로그 신청하시고 지고한 인품을 함양할 수 있는 큰스님의 소중한 글도 함께 공유해 보세요.

동사섭 소식. 넷

매월 넷째 주, 주말은 함양에서

<월례정진>

일지
조현숙 님

매월 넷째 주말에 함양 행복마을에서 열리는 월례정진 장에는 맛과 영양(재미와 유익)이 가득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월례정진은 근황 나눔으로 시작하여 수심명상으로 이어집니다. 참석자가 돌아가며 소리를 내어 수심명상을 읊기도 하고, 혼자 속으로 깊게 음미하기도 하면서 집중적으로 수행표에 공(○)표 치기를 합니다. 저녁 마당에는 엔카운터장이 열립니다. 엔카운터장이 끝나면 삼삼오오 자연스럽게 모여 서로의 수행담을 주고받는 자유로운 나눔의 시간을 보내며 뜨겁고 화기애애한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날, 동사섭 이론 32강 중에 핵심이 되는 주제를 현공 님의 맛깔스런 강의로 복습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천령산 산책로를 따라 돈망명상 산책에 나섭니다. 간혹, 큰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는 행운이 있기도 하고, 예상치 않은 이벤트로 새로운 경험을 하는 보너스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월례정진은 동사섭 수련 프로그램에 다녀가신 모든 분께 열려있는 복습과 후속 공부의 장입니다. 마음공부란 수행이요, 수행은 '우리 모두의 행복해탈을 위하여' 무한히 계속되는 닦음의 과정입니다.

월례정진, 일상의 환경에서 벗어나 일단 이 장에 몸을 실으면 마음의 행복 즉, 마음공부라는 주제에 온전하게 몰입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함께하는 마음공부의 장은 일상적 개별수련의 힘을 갖도록 다져줍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마음공부촌에서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마음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

농부 김종현

이번 월례정진 중 특강에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기'라는 주제의 강의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고 자칫 상황에 휘말리기 딱 좋은 요즘같은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매 순간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을 선택하니 갈등과 힘든 상황은 온데간데없어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례정진의 소중함과 감사를 느낍니다.

푸른산

월례정진은 저에게 따끈따끈한 사랑방입니다. 자칫 관념적으로 흐르기 쉬운 불교와 동사섭 원리를 복습하여 실천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길라잡이 시공간입니다.

보광

직장에서도 월 단위로 로드맵과 실행율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집중하는데 하물며 우주의 과업인 내 마음관리에 대해 안일하게 사는 것을 반성하며 월례정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삶의 최우선순위에 집중하게 되어 뿌듯합니다.



동사섭 소식. 다섯

〈상주모임〉

동사섭 상주모임은 2010년경부터 이름 없이 소수 인원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2013년 상주모임이라는 이름을 걸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4년부터 현재의 7인 멤버가 함께 공부하게 되었다.

이 모임은 동사섭의 메시지를 일상의 공부 속에 녹여내기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초기 모임은 지역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가진 멤버들을 맞이하여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풍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쌓을 수 있어 그 재미도, 의미도 쏠쏠하다.

지훈

김소영 님

격주 월요일마다 동사섭 지도자의 강의·실습과 함께 본격적인 공부 모임을 가지며, 모임이 없는 월요일에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따로 모여 거울 님의 30분 강좌 녹취본을 교재 삼아 함께 읽고 실습하며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니, 결국 매주 모이고 있는 셈이다. 또한, 새해 들어 새롭게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맞아 공부 모임을 재편할 계획이다.

동사섭 상주모임 공부꾼들은 지난번 고급과정(35회, 2015년 1월)에 네 명이 참가했고 평소 백일정진이나 일상공부도 진지하게 진행해 왔으며 한 분, 한 분 지도자로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소모임을 구성할 역량을 키우고 있다. 나아가서는 동사섭 경북센터 설립을 꿈꾸며 차근차근 공부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새해 들어 동사섭 상주모임은 동사섭 경북모임으로 이름을 바꾸어 진행해 볼 예정이다. 새로운 회원도 몇 분 더 들어와 일반과정에 갈 때까지 공부와 일상정진을 함께 하게 되었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 동사섭 6기 지도자 과정에는 다섯 분의 도반님들이 매월 정진을 다지게 되어 동사섭 경북모임의 역량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 온 세상의 양장력(良場力)이 되기를 두 손 가만히 모아 바라본다. ○

동사섭 상주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일곱 분을 소개한다.

하나. 만나 님

제일 큰 언니 만나 님. 만나 님은 공부하는 열정을 몸소 보여주신다. 갑상샘 관련 질환을 자연치유로 이겨낸 분이기도 하다. 마음공부 모임에 늘 꾸준한 애정과 관심으로 참여하며 가끔 영양과 신선함이 가득한 보양식을 제공해 주시기도 한다. 늘 감사하다.

둘. 은향 님

은향 님. 매번 심도재라는 한옥을 모임 장소로 내어주신다. 우리밀 친환경 식품의 사장님이기도 한 은향 님은 딱딱딱하게 구들장을 땀겨주고 맛있는 차를 내주시기도 한다. 상주모임에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지원군이자 공부꾼이시다.

셋. 새봄 님

새봄 님은 상주의 ‘공갈못 문화재단’ 전래놀이 팀에서 지역 아이들의 놀이문화를 살리기 위해 방과후학교 교사로 부지런히 활동하며 상주 문화 소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새봄 님은 지역사회에 대해 꿈이 많은 야무지고 이쁜 분이다. 새봄 님은 다니는 곳마다 동사섭과 상주모임을 알리는 전도사이다.

넷. 태범 님

뿔뿔뿔한 눈빛의 태범 님. 불과 지난해부터 공부를 시작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인 동사섭 공부꾼이다. 가족에 대한 고민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이전보다 배움이 깊어진 이제는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공부원이다.

다섯. 수선화 님

수선화 님. 모임의 막내이지만 때로는 든든한 언니 같다. 영특하고 배움이 빠른 수선화 님은 아이 셋의 엄마이자, 시골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다. 이번 2월 일반과정을 예약해 둔 수선화 님을 보면 상주모임의 알찬 미래가 보이는 듯하다.

여섯. 천동 님

월 1~2회 정도 꾸준히 참가하시는 천동 님은 청일점이다. 지난 모임 이후로 다른 남자 구성원이 없지만 천동 님은 자연스럽게 잘 참여하신다. 처음 모임에서 ‘상주모임에서는 서로 동사섭 공부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다. 천동 님이 꾸준히 참가한 덕분에 동사섭 공부가 더욱 진지해졌다. 요즘은 거울 님의 임서 강의를 상주모임에서 열강해주셔서 천동 님의 뜻도 짱짱해지고 상주모임의 공부 열기도 더욱 오르는 듯하다.

일곱. 지훈 님

지훈 님은 오랜 동사섭 공부 경력만큼 공부가 탄탄하지는 않았지만, 상주모임에 참여한 덕에 크게 공부 자극을 받고 있다. 특히 안내를 해야 하는 역할이다 보니 누구보다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다. 동사섭에서 평생 쌓을 인연을 만들어가는 재미가 좋다.



수련회 소감문, 하나

제255회 동사섭 일반과정

별
박선정 님

동사섭 일반과정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막연히 단체 수련회 정도로 인식하고, 별다른 마음의 준비도 없이 왔다. 그동안, 시끄러웠던 부부간의 불화가 극에 치닫고 가정은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고 해야 할까. 동사섭에 도착해서도 마음의 응어리는 바윗덩이 같았다.

방을 배정받고, 짐을 풀고, 첫 대면을 하고, 인사를 나누고... 첫 수업부터 심상치가 않다. 용타 큰스님의 정체, 대원, 수심, 화합, 작선, 이상공동체 5요. 정말 그럴듯하고, 맞는 말 같고... 결국 귀가 솔깃해지며 점점 빠져들었다. '표현의 부재는 실체의 부재다.', '속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실존적 사랑이다.' 그간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그리고 절실히 원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곧 5대 악성 받기. 바로 나다. 1g, 1톤의 원리, 바로 나다. (긍정의 1g이 아닌 부정의 1g 또는 1톤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충격이었다. 그냥 거리낌 없이 마구 써왔던 그 말의 역효과가 그렇게 큰지 잘 몰랐다. 여태껏 나의 교류는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소통의 부재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전 삶은 완전히 잘못 살았음을... 그저 연속으로 놀라고만 있었다. '언어 중의 언어는 칭찬이다.' 라는 말은 더욱 귀구멍을 찾고 싶게 만들었다. 화안애어 和顔愛語. 어디 나하고 상관이나 있는 말이었던가.

지족명상은 더욱 충격이 컸다. 이미 넘치는 행복을 가지고도 깨닫지 못했던 나의 마음속 모순덩어리들을 몰아낼 수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시간이었다. 이미 수많은 모든 것들이 감사와 축복이었고, 이것을 깨우치지 못한 나의 우매함에 그저 멍해질 뿐이었다. 하루하루 그저 놀라움과 수치심이었다. 사람들은 원을 그리듯 둥그렇게 모여 서로에게 삼배를 한다. 또한 충격이다. 우리 모두의 존재가 새삼 고귀하고, 그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라는 것.

맑은 물 붓기는 '내 마음 정화 작업'의 결정판이었다. 여태껏 속으로만 삭여왔던, 내 아이들에게 차마 하지 못한 말과 미안함과 잘못을 오늘 비로소 빌었다. 그들은 나의 몸만 빌려서 나왔을 뿐, 모두 고귀한 생명임을 깨닫고, 혹여 상처받았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그저 먹먹하니 말문이 막힐 뿐이었다. 가슴이 이렇게 찢어질 수가...

동사섭을 마치며 하루하루가 깨우침, 깨우침, 뉘우침, 뉘우침이다. 그저 머리를 수그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며, 덩치만큼이나 미성숙 덩어리임을 알고 난 뒤에는 나 자신도, 남편도, 가족 모두 그 존재가치만으로도 감사했음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다. 내 생애 별처럼 빛나는 동사섭을 만날 수 있었음을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으로 삼고, 깨달음의 바탕에 나의 가정을 든든히 이끌어 갈 자신감이 이 순간 마구 솟아오른다.



수련회 소감문, 들

제44회 동사섭 중급과정

기린
도용회 님

지난여름, 일반과정을 마치고 벅찬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지금부터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생각에 모든 것이 새로웠다.
집에 도착하니 딸아이가 아빠! 하고 반기며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든다고 하여 기분이
좋았다. 내 삶이 이전과는 다른듯하였다.
적어도 2주 동안은 그랬다는 말이다. 2주
정도 지나니 마음공부의 약발이 떨어졌는지
아이의 입에서 “역시 아빠는 2주짜리군!”
하고 핀잔이 나왔다. 평소에도 워낙 연수를
자주 다닌 편이라 아이가 나의 연수 약효가
얼마나 가는지 꿰뚫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동사섭에 대한 그리움과
중급과정을 공부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겨울방학이 되자마자
동사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중급과정에 맞춰
나의 일정을 짜고, 설레는 마음으로 동사섭
가는 날을 기다렸다. 드디어 그날이 왔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는 심정으로
공부에 임했다. 첫날 거울 님의 강의에서 지금
이 순간, 자유롭게 행복한 것이 올바른 삶을
강조하심을 듣고 ‘그래, 바로 저거야.’ 싶었다.
이번에는 업그레이드해서 돌아가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2주짜리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중급과정 내내 ‘Here and Now’에서 자유롭게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화두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방법으로 5요, 돈망, 나지사,
지족, 비아, 죽음에 대해서 명상하는 방법과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서 실습을 하고
점검표를 작성하였다. 일반과정을 마치고
점검표를 받아 갔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고 책장에 그냥 얹어 놓았었다.
공(○)표 치기를 하다 보니, 그래, 이것을
이렇게 활용하면 최소한 2주짜리 인생에서는
벗어나겠다 싶었다.

거울 님의 최소한의 인문학강의를 듣고
있는 순간순간이 나에게서 기쁨과 깨우침의
연속이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앓과 깨우침
그리고 진리에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이 예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다.
‘지금 어떠세요?’라는 인사는 평소에도
많이 받았던 인사였지만, 그것이 ‘지금
자유로운가?’에 대한 나 자신의 알아차림이
된다는 것을 거울 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새삼스레 알게 되었다. 지금부터는 ‘지금
어떠세요?’ 라는 인사를 받으면 나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순간 알아차릴 일이다.



돈망명상, 나지사명상, 지족명상, 비아명상, 죽음명상 중 돈망을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되는듯했으나 가슴에 꽃힐 정도의 이해는 되지 않았다. 'Here and Now'에서의 자유로움이 느껴지면 제법 돈망이 잘 된 것이라는 거울 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좀 안심이 되었다. 공부와 명상 실습이 거듭 될수록 돈망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더해 갈 수 있어서 행복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상我相과 염체念體덩어리들의 장난에 놀아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지족명상은 평소 다른 공부에서도 했던 터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그동안 있었던 감사의 대상들이 늘어나서 행복했다. 비아명상을 하는 것은 처음에 참 어려웠다. 수업시간 집단 상담장면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수업도 해보고 나 자신도 작성해 보았지만, 그냥 별생각 없이 생각 놀음으로 했던 것 같다. 비아명상을 통해 내가 나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허상임을 알게 되었다. 거울 님의 가르침대로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찾아가기 위한 명상을 하는 순간부터 나는 무엇인가를 알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 기뻐다. 내가 아닌 것을 가지고 나라고 끄달리며 허깨비 놀음을 하던 가없는 나를 보게 되었다.

'구나', '졌지', '감사'로 이어지는 나지사명상은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다. 평소에 나와 모임을 자주 하며 나를 사사건건 무시한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후배가 떠올라 나를 움짱달짝 못하게 했다. '졌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아버님 장래가 끝나기도 전에 돈 이백을 요구하던 마을 이장에 대한 생각도 나를 너무나 괴롭혔다. 나의 처지가 아니라 상대의 처지에서 보고 한 부분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전체의 인격을 보면서 풀어가라는 현공 님의 가르침대로 해보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수월해졌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었던 것들 먼저 생각해보니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 '졌지'도 쉽게 풀리게 되었다. 꼭 '졌지'를 먼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알게 되었다. "졌지에 걸리면 '감사'를 생각하라." 이것이 나의 깨달음이다.

죽음명상을 할 때, 어머님께서 나의 죽음 소식을 듣고 받으실 충격을 생각하니 정말 죽음을 피하고 싶었다. 평소에도 병약하시며 불안과 우울을 달고 사시는 분이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는 더 심해지셨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채 일 년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까지 죽는다면 어머님께서 어떻게 되느냐는 생각에 나의 죽음을 수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도 죽음명상을 계속하다 보니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래, 지금 나는 내 생각 놀음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야! 거울 님의 가르침처럼 내 삶은 여기까지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갈 거야! 오히려 나 때문에 마음 놓고 돈을 쓰지 못하던 것을 내가 없다면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맛난 것도 잡수시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 걸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작성과 건강은 별 어려움이 없었다. 행동명상을 할 때 도반들과 마음껏 자신을 표출하는 가운데 더욱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았고, 절명상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어 무척 좋았다. 중급과정은 거울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시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명쾌하고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수행점검표에 동그라미 하며 실습을 하여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곳에서의 가르침대로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정진하며 살아가리라. 지금 나는 자유롭다.

그래,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이미 부처다!



수련회 소감문. 셋

제35회 동사섭 고급과정

백월
차덕근 님

첫 시간, 큰스님께서 법향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어떤 존재로부터 나오는 향기를 말함이다. 향수를 몸에 뿌린 아가씨가 스쳐 지나가면 향수 냄새가 나듯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그로부터 어떤 향기가 나게 마련인데 그것이 법향이라 하신다. 이에, '아하! 그렇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건 간에 그가 나타나면 그로부터 어떠한 향기가 있지.' 하고 크게 수궁이 된다.

또한, "마음의 향기가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이가 나타나면 그로부터 특정한 향기가 나게 마련인데, 이왕이면 마이너스(-)적 냄새보다는 오분향(五分香)을 내뿜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오분향을 내뿜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존재 자체에서 오분향이 나오고 있다고 믿어버려야 좋을 것 아닌가..." 라는 큰스님 말씀에 '그렇지, 스스로 오분향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나오기 어렵겠지. 자신에게서 오분향이 나오고 있다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비로소 오분향은 꿈틀거리기 시작할 거야...' 고개가 끄덕여진다.

*오분향(五分香)

: 최고의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공덕을 향에 비유한 것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脱香), 해탈지견향(解脱知見香)



그리고 존재하는 자신의 몸뚱이는 에너지 덩어리이므로 이 에너지는 끊임없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에서 오분향과 같은 좋은 향기가 나오도록 하여 서울 도심과 같은 복잡하고도 탁한 기운이 있는 곳을 좋은 기운으로 정화하리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신다. 또한 마음이 있는 곳에 기운이 있는 법이니 자신의 향기로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이 지구를, 이 우주까지도 정화하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신다. 이에 크게 수궁하며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고 다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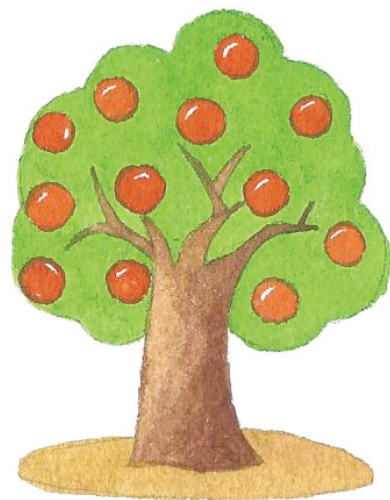
향기 중에서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고 해서 더는 깨끗해질 수 없는 상태에까지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나오는 향기가 최고의 법향인 법이다. 가장 깨끗하게 비운 마음의 상태가 돈망이기 때문에 돈망의 상태에서 나오는 향기가 최고의 법향이며, 돈망 상태에서 가장 밝고 맑은 향기가 나온다고 말씀하신다. 이에 온전히 수궁이 되고 이 몸 반드시 이번 과정에서 돈망을 파지하고 돈망을 파지한 마음으로 최고의 법향을 내뿜어서 세상을 정화하리라고 크게 다짐한다. 그러나 돈망점검에서 보기 좋게 낙방하여 최고의 법향을 내뿜을 수는 없게 되었다. 다음 언젠가 있을 인가날을 기약하며 돈망 미과지자로서 내뿜을 수 있는 최고의 향기를 내뿜어 세상 정화에 기여하리라 다짐하며 법향에 대한 소감문을 의미있게 작성해 본다.



수련회 소감문. 벳

한국윤리경영학회 및 인품포럼 대상 미니동사섭 소감문

촌철
유규창 님



보통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데, 이번 동사섭 미니프로그램은 기대 이상이였다. 아니, '이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벅차고 감동적이였다. 그리고 두렵기도 하였다. 내가 과연 나와 약속한 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나를 발견했다. 안전지대에서조차 긴장해왔던 나를. 그것은 미성숙이였다. 개선의 명목으로 안 되는 것을 중심으로 세어왔다. 가족관계에서조차.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가벼운 칭찬과 아부도 낮간지럽다고 받아들이지 못했다. 인간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언제나 새로운 인간이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대하지 못하였다. 보시, 감사, 사과, 관용 가운데 관용이 가장 취약했다. 걸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내가 하는 지적은 가벼운 1g짜리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지적은 무거운 1톤이라고 여겼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무게는 간과했다. 그리고 출발했다. 아마 오래전에 시작되었는데, 점차 속도가 붙다가 동사섭을 계기로 더 가속페달을 밟은 것 같다. 내 인생의 진정한 여정이. 현명한 자의 인생을 살겠다.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존재의 현상만을 보는가 아니면 존재 현상 그 이면에 있는 원리까지 볼 수 있는가에 있다. 지금까지 존재의 현상만을 봤다. 아니, 보려고 했다.

그 이면의 원리를 보는 것이 한편으로는 귀찮고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너무 많이 알게 될까 봐. 원리를 본다. 행복의 원리는 긍정이다. 긍정적 Feeling이다. 그것은 내 주변에 대한 Good Feeling이다. 그 주변은 나에서 시작하여 가족, 친척, 친구, 직장, 사회, 국가, 지구, 우주로 확장된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냥 긍정적으로 보면 된다. 그리고 기록한다. 실천은 나눔 공식과 나지사명상에서 시작한다. 나눔 공식의 반응-감지는 모든 생물의 생존법칙이다. 생물학자 윅스켈(Uexkuell)의 말이다. 인간은 여기에 더해 공감-표현이 있다.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차별되는 지점이다. 인간이 더 잘해야 한다.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나 역시 그랬다.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히 가족으로부터 공감과 표현을 기피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과 표현을 하지 않았다. 나는 핑계가 있고 다른 사람은 인격이 안 좋다. 거꾸로다. 다른 사람은 이유가 있고

나는 인격수양이 덜 되었다. 나지사명상이 너무 좋다. 천하를 둘러봐도 그지없는 모든 것들은 여여히 그러하구나. 다 인과이니 그러하겠지. 그 정도면 감사하다. 인생의 종착이 죽음인가? 내 존재는 그러하나 실체는 영원하겠지. 죽음으로 남는 걸림이 없을 줄 알았다. 와이프가 내가 산에 간다고 하면 바가지를 끊을 것 같다고 했더니 한 도반이 산에 가는 것과 죽음은 같은 것이라고 했다. 해서 죽음명상을 다시 했다. 선명히 와이프의 울부짖음이 들리고 느껴졌다. 왈각 울음이 나왔다. 그랬던 거야. 죽음으로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와이프의 사랑이 있었다. 평생의 숙제다. 가족은 나의 인생의 수련장이 아니던가? 막걸리 생각이 난다. 한잔 마셔도 되나? 훨훨 자유로운 기분으로... 집에 간다.



쉬어가는 페이지

민화란 이름 없는 백성들에 의해
그려졌던 그림이다.

외갓집 벽장에 걸려 있던
연잎 아래 커다란 잉어 그림은
지금 생각해 보니 민화였다.
손때와 콧물로 세월 묵어가며
아랫목에 깔려있던 숨이불처럼 편안했던 그림,
처음은 누군가의 창작이었겠지만
누가 그렸네 하며 이름을 새기지 않았다.
아무나 그릴 수 있게 어떻게 그리는 것인지
모양이며 색 내는 방법들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민화는 수본을 따라 수를 놓듯
모양을 본떠 그대로 그리는
임화로 자리 잡았다.

환희

정경희 님

‘따라 할 뿐 따로 짓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타고나지도 빼어나지도 않은 분들이
스승을 좇아 그대로 따라 하기를 몇 년 하더니
드디어 스승을 능가하는 것을 보았다.
배우는 자로서의 겸손과 덕성을 부끄러움으로 실감했었고
다시 그린다면 한 가닥 한 가닥
유치원 아이처럼 따라 배우리라.

○



〈목련쌍치도木蓮雙置圖〉

생활이 곧 수행

生活即修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놓으신 수행 방법인 8정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삶의 모든 영역이 수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분 해탈』

p14~p18

제1장
행복·특공대

용타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펴냄

‘생활 속의 불교수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교류하게 됨을 진정 기쁘게 여깁니다. 25여 년 동안, 석존불교 내지 선불교를 초 종교적인 생활수행 프로그램으로 정립하여 생활수행을 안내해 온 것이 여러분과의 인연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생활수행을 개관해 보는 것으로 주제를 삼을까 합니다. 여행자가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것이 지도이듯이 생활수행에도 수행 지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수행은 일상수행(日常修行)과 별시수행(別時修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상수(日常修)와 별시수(別時修) 혹은 일상선(日常禪)과 별시선(別時禪)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공부인은 튼튼한 발심(發心)의 토대 위에 하루하루 생활을 일상수 혹은 별시수로 잘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상수는 어묵동정행주좌와(語默動靜行住坐臥)의 모든 삶의 과정이 바로 수행이 되게 하는 것이요, 별시수는 특별하게 공부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의 불교수행이라 주제를 내걸 때는 별시수만을 수행인 것처럼 여기는 공부 풍토에서 생활 자체가 그대로 수행이게 하자는 인식 전환을 주고 싶은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별시수를 말자는 것이 아니고 별시수를 잘 활용하면서 일상수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어묵동정행주좌와(語默動靜行住坐臥)
(=행주좌와어묵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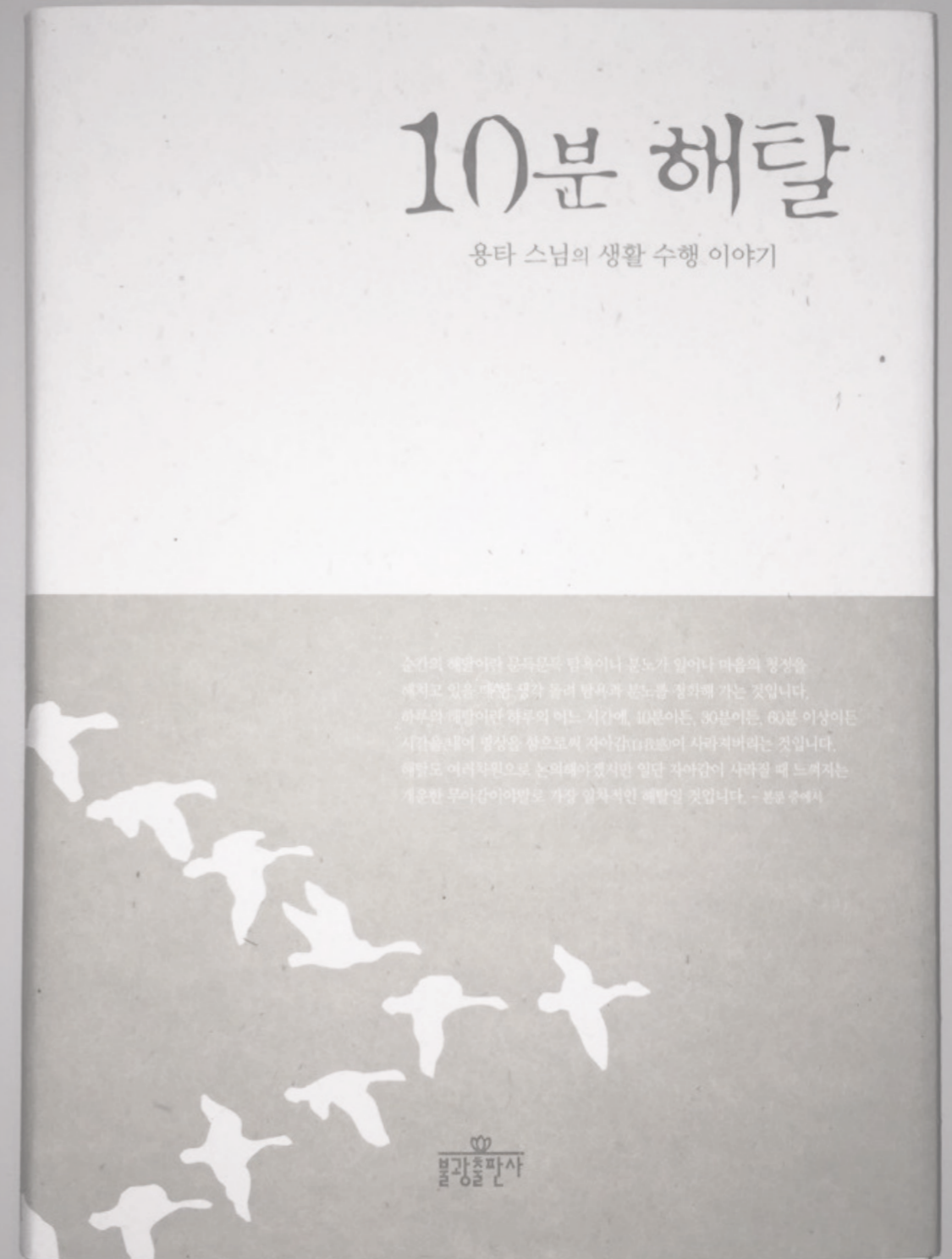
: 걷고, 머물고,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을 때, 즉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순간을 말한다.

한국 수행불교 역사를 문화적으로 관찰해 볼 때, '수행'이라고 하면 스님들이 하안거^{夏安居}나 동안거^{冬安居}를 통하여 선방에 앉아 매일 8시간 내지 15시간 동안 좌선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재가자들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시간 중 생활과는 별도의 시간을 내어 조석으로 조금씩 좌선을 하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산사에 있는 재가자^{在家者} 선방에 들어가서 며칠 정도라도 좌선을 하는 것이라야 제대로의 수행인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생활수행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생활은 별도로 있고 참선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을 별도로 할애해야 생활수행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실정이었지요. 물론 그러한 정진이 수행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제대로 된 수행이라고 여기는 신념 체계는 잘못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놓으신 수행방법인 8정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삶의 모든 영역이 수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삶)이란 사언행^{思言行}, 곧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사언행의 삼업을 바로 하는 것이 일단 수행이라 여기면 적중한 생각입니다. 그 '바름'에는 바름의 기준이 있어야 할 터, 바른 가치관 곧 정견^{正見}이 그것입니다. 생활이 수행이려면 순간순간 사언행의 모든 삶의 과정이 정견의 원칙에 부합될수록 좋습니다. 정견은 팔만사천 세행의 기준이 되므로 사실상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8정도를 설함에 당하여서는 정견을 도체^{道體}·도의 몸라 하고 다른 일곱 가지 정도^{正道}를 도지^{道支}·도의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견을 기준으로 사고^{思考}에 있어 정사유^{正思惟}가 되도록 하고, 언어에 있어 정어^{正語}가 되게 하며, 행동에 있어 정업^{正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8정도의 '정견-정사유-정어-정업'이 사실상 수행의 기초이며 그 뜻을 넓혀 해석한다면 수행의 전부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37조도품의 모든 수행법은 8정도의 '정견-정사유-정어-정업'이 그 모태가 되고 이 모태에서 다 파생되어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순간의 해탈이란 몸과 마음의 집착이나 분노가 일어나 마음의 청정을 해치고 있을 때만 생각 돌려 반석과 천도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루와 해탈이란 하루의 어느 시간에, 10분이면, 30분이면, 60분 이상이면 시간을 내어 정성을 참으로써 자아감(ego)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해탈도 여러차원으로 논의해야겠지만 일단 자아감이 사라질 때 느껴지는 깨끗한 무아감이야말로 가장 일목적인 해탈일 것입니다. - 본문 중에서

그래서 수행이란 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언행을 바로 하는 것이라 갈파하면 아주 적절합니다. 수행이란 탐진치^{貪瞋癡}가 사라지게 하여 대해탈^{大解脫}과 대자비^{大慈悲}와 대자재^{大自在}를 갖춘 부처가 되도록 삼학-8정도-육바라밀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불교에 입문하여 신행생활을 조금 하다보면 상식처럼 아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일렀듯이 생활 속의 수행이란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수행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생활 그대로가 수행이게 한다는 뜻이니, '생활 즉 수행^{生活即修行}'이요, '수행 즉 생활^{修行即生活}'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아공, 법공^{我空, 法空}을 말하면서 주와 객에 그지없이 집착하고, 이대로 부처라 하면서 사람 대하기를 쉽게 하고, 한 생각 돌리면 될 자리에 집요하게 매달리며,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을 무수히 염하면서 이간질이며 악구^{惡口} 등을 막지 못하며, 불살생을 말하되 생명에의 존중감이 적고, 해인삼매니 화엄삼매를 말하면서 마음은 산란하여 천 갈래 만 갈래라면, 생활이 그대로 수행이게 하자는 것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진정 부끄러움 없는 생활 속의 수행이 되도록 스스로의 사언행을 엄정하게 살피고 자동화되어 있는 미성숙한 신구의 삼업의 수레바퀴에 각근한 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별시선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일계획, 주계획, 월계획, 연계획 등으로 별시수의 계획을 잡아두고 실참실수^{實參實修}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좌선, 행선 혹은 절하기, 경전 독송 등을 몇 분 혹은 몇 시간을 형편에 맞추어 실천하고, 주말이나 월 몇 회 철야 참선 정진이나 기도 등을 하는 것도 좋고, 연계획으로는 재가자 동안거나 하안거 혹은 산사 수련회에 동참하는 것 등 스스로의 편의에 맞추어 별시선과 일상선이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수행으로는 정견을 바탕으로 사언행을 바로 함, 별시선으로는 일간-주간-월간-연간 단위로 공부계획을 정하여 실참실수하는 정도로 생활 수행의 지도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생활수행 맵^{map}에 준하여 우리의 생활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엮어가 볼 것입니다. ○

큰스님 동정

용타 큰스님 동정

- 2014. 12. 06. 서울센터 월정기강좌, 인품포럼 참석
- 2014. 12. 07. 귀신사 수계식 참석
- 2014. 12. 08. 함석헌 사상 연구회 정기 세미나 참석 (전북 익산 원광대캠퍼스)
- 2014. 12. 10. 제5기 지도자과정 17, 18강 강의 (12일 까지)
- 2014. 12. 15. 수원사 법문 (경기도 수원)
- 2014. 12. 15. 제255회 일반과정 강의 (함양)
- 2014. 12. 26. 돈망파지자 모임 참석 (함양, 27일 까지)
- 2014. 12. 27. 월례정진 참석 (함양, 28일까지)
- 2015. 01. 03. 서울센터 월정기강좌, 인품포럼 참석
- 2015. 01. 10. 제44회 중급과정 강의 (함양, 14일 까지)
- 2015. 01. 17. 제35회 고급과정 강의 (함양, 21일 까지)
- 2015. 01. 23. 돈망파지자 모임 참석 (함양, 24일 까지)
- 2015. 01. 24. 월례정진 참석 (함양, 25일 까지)
- 2015. 02. 02. 원로스님 모임 참석 (전북 남원)
- 2015. 02. 07. 서울센터 월정기강좌, 인품포럼 참석
- 2015. 02. 09. 윤리경영학회 교수진 대상 미니 동사섭 강의 (함양)
- 2015. 02. 14. 제6기 지도자 과정 강의 (15일 까지)
- 2015. 02. 22. 제256회 일반과정 강의 (함양)
- 2015. 02. 27. 돈망파지자 모임 참석 (함양, 28일 까지)
- 2015. 02. 28. 월례정진 참석 (함양, 29일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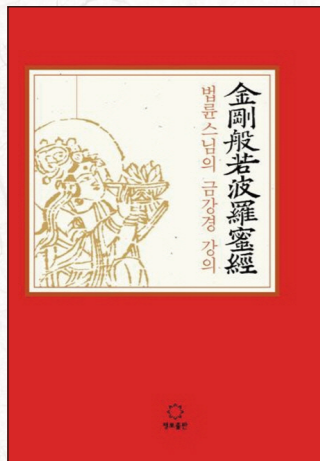


평정심

톰 스톤 지음 | 정채현 옮김 | 아시아코치센터 | 2010년 03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비결!

『평정심』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코치이자 강사인 톰 스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탁월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게 해 주는 새로운 인간관계 방법을 공개한 책이다. 세미나와 강의를 통해 자기계발과 성장을 위한 효과적이고 유익한 기술을 고안하고 개발해 온 저자는 휴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개척자이기도 하다. 문제가 되는 코어다이나믹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깊이 있고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창조하기 위해 가장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도구의 정수를 뽑아 여덟 가지 순수의식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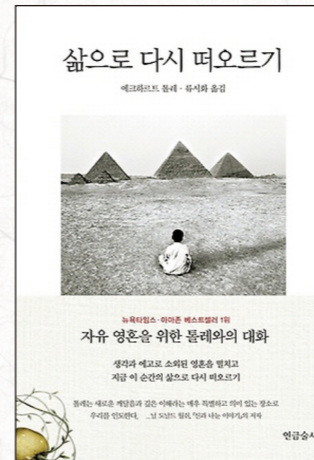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 지음 | 정토출판 | 2012년 11월

금강경을 법륜스님의 언어로 다시 읽는다!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평화운동가 법륜스님이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언제나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깨달음과 수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쉽고 명쾌한 법문으로 잘 알려진 저자가,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경전으로서 선종에서는 육조 혜능 대사 이후 소의경전으로 중시되는 《금강경》을 강의하고 있다. 《반야심경》과 더불어 대중에게 널리 독송되지만 독특한 전개 방식과 사상 깊이 때문에 뜻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금강경》에 가깝게 다가서서 열반과 해탈에 이르는 바른 가르침을 얻도록 이끈다. 저자가 2002년부터 1,000여 회가 넘게 진행해 성별, 나이, 종교, 이념을 뛰어넘은 국민의 멘토로 활동하게 한 즉문즉설의 해답의 기준이 바로 《금강경》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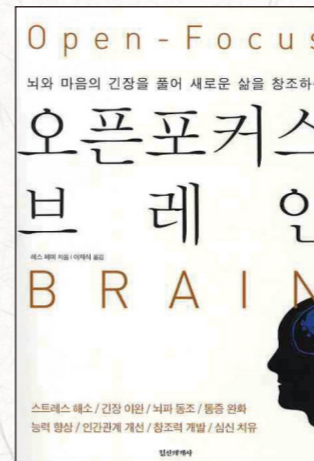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 | 지음 류시화 | 옮김 연금술사 | 2013년 08월

지금, 애고와 결별을 선언한다!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는 새롭게 떠오르는 영성가이며 21세기의 영적 교사로 일컬어지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지침서이다. 톨레의 저서들은 생각과 감정을 자신이라고 여기는 인간의 근본적인 착각을 다룬 명저로 꼽힌다. ‘애고에 바탕을 둔 삶’과 그러한 삶들이 모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 애고가 모든 인간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실체를 보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임을 알려주며, 그리고 그것이 인간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오픈포커스 브레인

레스 페미 지음 | 이재석 옮김 | 정신세계사 | 2010년 02월

당신의 삶을 수월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오픈포커스’ 뇌와 바이오피드백 분야의 선구자 레스 페미의 『오픈포커스 브레인』.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바꾼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 그리고 치유를 얻게 될 것임을 일깨워준다. 특히 주의를 조절해주는 ‘오픈포커스(Open-focus)’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의를 기울이는 새로운 방식을 가르치는 오픈포커스 훈련을 규칙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오랫동안 괴로움을 받아온 감정적, 신체적 통증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불편한 느낌을 쉽게 해결하도록 이끈다. 아울러 오픈포커스 상태로 확장시킨 주의를 가정, 일, 놀이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2월 어느 날, 강릉에서 선혜(좌) 님, 선광(우) 님, 2015.

— 동사섭 회원 탐방 —

동사섭인의 향기**

선혜 유소림 님 선광 정태식 님

** 동사섭인의 향기

동사섭 소식지 개편을 맞이하여 새로운 쪽지를 마련해보았습니다. 이름하여 '동사섭인의 향기'. 만 명이 다녀간 명상 프로그램이니만큼 우리 동사섭에는 다채로운 회원님들이 많으신데요, 지고한 행복을 위해 어떠한 수행을 하고 계신지 라이프스타일이 궁금했던 분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 뵈었던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함양과 서울에서 열리는 동사섭 프로그램이나 강의에 참여하다 보면 많은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엔 항상 옆에서 묵묵히 주변을 돌보며 친절을 베푸는 분들이 계시죠. '천사 같은 이분들은 과연 누구일까?' 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중 유독 마음을 이끄는 두 분이 있습니다. 선혜 님과 선광 님. 두 분은 부부시지요. 강원도 강릉에 살고 계신 이 부부, 교통편이 녹록지 않음에도 함양으로, 서울로 오가며 성실하게 마음공부를 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분의 이야기가 좀 더 궁금해져 강릉의 두 분 댁에 방문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두 분의 인연과 인생, 그리고 동사섭에 대한 생각을 들어봅니다.

취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이 아주 예쁘네요!

선혜 님(이하 '선혜') 고맙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부천과 일본의 동경 등 도시에서 살았어요. 2004년 귀국하여 2005년에 이곳 강릉에 집을 짓고 꽃과 나무를 심고 농사도 지으며 살고 있어요. 몇 해 전, 앞산에 있는 작은 절의 스님께 동사섭을 소개받고 강릉과 함양을 오가고 있습니다.

동사섭을 만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선혜 동사섭에는 선광 님이 먼저 갔는데 그때가 2010년 12월이었어요. 저는 30대 후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 불교에 관심이 생겨 20년간 혼자서 이런저런 불교책을 보았습니다. 여기 내려와서도 조그만 차실^{茶室}을 만들어 그곳에서 방석 위에 앉아있곤 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한계가 오더라고요. 어느 날 앞산에 있는 절에서 처음 강원도 생활을 시작한다는 비구니 스님을 알게 되고, 아침예불에 동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동사섭을 소개받았어요. (그 비구니 스님께서서는 젊은 시절 동사섭을 접하고 발심하여 출가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는 수련회 같은 곳이 낯설었어요. 마침 선광 님도 막 불교 공부를 시작했을 때라 먼저 한번 가보라 했지요. 일반과정을 마치고 선광 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좋았어?" 했더니 "그럼!" 이러는 거예요. 한편으론 이런 데를 왜 가라 했느냐고 하면 어찌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안심이 되었지요. '5대약성받기'가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진작 그것을 알았더라면 직장생활이나 아이들에게도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요. 그게 제일 인상 깊었나 봐요.

선광 님(이하 '선광') 그랬죠.

'5대약성받기'가 첫 감동이었어요. 일반과정을 다녀와서 친필 말씀이 쓰인 큰스님 책 2권을 집사람에게 보여줬죠.

선혜 『마음 알기 나누기 다루기』는 '하늘같이 바다같이'였고, 『10분 해탈』은 '知足最富'였지요. 그런데 그때는 '지족최부'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불교 공부를 마저 하고 싶고, 알고 싶은 게 가득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지족을 하라는 거지? 반발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큰스님 책을 보고는 완전히 놀랐어요. 한 20년 동안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봤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죄다 두루뭉술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큰스님 책에서 '수행로드맵', '조바라밀', '주바라밀'... 그런 말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퍼는 책도 있구나. 왜 이런 책을 진작 못 만났지. 하며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러곤 나도 가야겠다 싶어 인터넷에 접속해서 신청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미 인원이 다 차서 2011년 3월이나 일반과정에 갈 수 있었어요. 그사이에 선광님은 중급과 고급 수련을 했습니다.

동사섭 프로그램은 어떠셨나요?

선혜 선광님은 고급과정에서 무언가 ‘뻥-’하고 왔대요. 선광님은 그때 저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었어요. 고급과정을 마치고 함양을 떠나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고 고급과정에서 얻은 금덩이를 담은 자루를 둘러메고 새하얗게 눈이 쌓인 산길을 걷는데 달빛이 교교하고 그 기분은 뭐라 말로 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 그 금덩이를 꺼내 보니 그 금덩이에 글씨가 쓰여있더라고요. 그 글씨가 뭐였냐면 ‘修’였대요. 닦을 수. 그때 선광님이 했던 그 말이 제가 평생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문학적인 말이었던 것 같아요. 하하하.

선광 (말없이 웃음만)



돈망과지 전후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선혜 저는 2011년 3월에 첫 일반과정을 하고, 이듬해 2월에 특설 고급과정에서 파지했어요. 이제 동사섭과 인연을 맺은 지 만 4년이 되고요. 선광님은 만 4년이 넘었네요.

선광 네. 저는 2011년 12월에 파지했어요.

선혜 2011년 여름이 되기 전인데요, 행복마을에 가기만 하면 산책하러 나가라 해서 돈망산책에 나갔어요. 그때 ‘개념이전’이라는 걸 처음 이해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자신의 신념 때문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살았고, 그러한 아버지는 제가 동사섭을 만나기 전까지 저의 스승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신의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견디며 사는 것이 고귀한 인생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제대로 사는 길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던 그것에 반대되는 가치가 있으니 스트레스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도 그냥 천량산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가치라는 것이 원래부터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우주의 뱃속에서부터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은 순전히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이 완전히 이해되면서 그야말로 자기의 가치 때문에 겪어야 되는 스트레스, 긴장.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곤 거짓말 안 보태고 46억 년의 짐 덩어리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어라 할 수 없는 휴식감^感이 몰려왔습니다. 오랫동안 걷고 걸다가 누더기를 모조리 벗어 던지고 뜨거운 욕탕에 들어간 사람 같다고나 할까... 아무튼 자지러질 것만 같은 휴식감이 몰려 왔어요. 신음소리까지 터질 것 같고, 도무지 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곧 돈망은 아니었어요. 돈망은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을 때의 의식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의식상태에 주목하지는 못했어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해방감 자체는 충분히 맛을 본 것이었습니다. 돈망의 의식 상태는 고급과정 말씀의 안내에 따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돈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선혜 동사섭에서 말하는 ‘있다, 좋다, 싫다, 불만사고’라는 번뇌 구조가 있잖아요. 그 번뇌에 물들기 전의 원래 깨끗하고 순수한 의식, 번뇌 놀음을 하지 않고 그냥 있을 때의 의식을 맛보는 게 돈망입니다. 없는 것을 맛보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을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중중연기^{重重緣起}한 세상에서 우리는 제 마음대로 이름을 붙인 개체를 만들어내어 그것을 있다 하고 또 그것을 좋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의식’이라고 하면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는 대상, 즉 ‘의식의 내용물’을 생각하지요. 말하자면 의식이 빈 접시라면 우리는 여기에도 연필을 담고 연필이라고 하고 책을 담고 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용물인 연필이나 책에 집중하다 보니 원래 본바탕인 비어있는 접시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무늬가 찍히지 않은 순수한 의식은 항상 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뇌 놀음을 그치고 본래의 순수의식을 알아차리고 그러한 의식상태의 지복감^{至福感}을 누리는 것이 돈망입니다.

동사섭 회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선혜 자기취미생활을 하는 데는 얼마든지 있지만 동사섭은 취미생활 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이왕 동사섭과 맺어졌으니까 한번 끝까지 가보시길 권해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면 우선 이 존재, 즉 <나>가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살아가는 합당한 방법을 알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은 <나>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냥 우리 주위에서 얻어들은 것을 그냥 자기 스타일로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섭에서는 이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달라이 라마 님의 책을 다시 보았는데 ‘불교란, 존재의 실재를 보게 하고 그것에 합당한 방법대로 살게 하는 것이다.’라는 대목이 크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급과정을 하면서 정말 그것을 가장 명확하고 최단기 코스로 콤팩트하게 드러내놓는 게 동사섭 고급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나>가 무엇인지, 내가 살고 있는 우주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전혀 모르고 그냥 산다는 건 우격다짐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니까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그래서 응무소주이생기심 應無所住而生其心이라는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를 놓고 볼 때 사람이라는 건 티끌만도 못한 건데, 그것에 중심을 두고 전체를 보려고 하니 맞지 않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정하게 하는 게 동사섭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체를 다 알자니 얼마나 복잡스러워요? 세상에 있는 학문만 해도 오만 가지, 백만 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에센스를 꼭꼭 전해주는 인문학, 그것이 동사섭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광 일반과정도 참 좋아요. 일반과정만 들어도 하나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정체(正體)를 뒤돌아보게 하거든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게 해주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大願)를 정해서 가야 되겠다는 확인을 해주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공부, 즉 수심(修心)을 해야겠다 것을 가르쳐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 잘 교류하고 지내는 것이 행복에 엄청 중요한 조건이구나. 갈등으로 살아갈 때의 불행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하려면 주변 분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야겠다 하는 화합(和合), 그리고 본인의 일을 잘해야겠다 하는 작선(作善). 그래서 다섯 가지로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엄청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과정만 들어도 대박일 가능성이 큼니다.

중급, 고급과정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걸어볼 수 있는 가장 먼 단계, 지고한 인품,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큰 깨달음, 큰 지혜 그런 것까지를 제공합니다. 큰스님께서 하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고급과정의 돈망을 뚫게 하여 인간의 어떤 지고한 단계까지 맛보게 한다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큰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돈망을 뚫어보라고 적극 권합니다. 그리고 돈망이라는 것도 파지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지 전에는 파지하는 것이 그야말로 중요하지만 파지 후에는 새로운 발자국이 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쪽으로 향하다가 죽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함께 공부하는 길동무 같아요. 우리 대화 중에 많은 것들의 주제가 동사섭 범리이지요.”

동사섭 슬로건이 ‘우리 모두의 지고한 행복을 위하여’잖아요. 많은 분이 ‘지고함’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지고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선혜 10년 전인가? 금강경을 읽었는데, 금강경 첫머리가 ‘구류중생을 모두 제도하리라’예요.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동서남북도 모르는 나 같은 중생에게 구류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해야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시는 말씀이 원망스럽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 동사섭에 와서 보니 그 첫 번째 가치관이 바로 정체, 대원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처님, 예수님이 맛보시는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섭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 원래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무와 풀을 보면 <나>라는 개념은 없어요. 나무는 그냥 살잖아요. 그냥 사는데 사는 것 자체가 다른 존재에게 보시하는 거예요. 나무가 없다면 산소를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나무는 <나>라는 개념도 없이 자기가 사는 것 자체가 보살행인 겁니다. 그냥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다른 존재를 위한 근거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보시입니다. 이게 특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눈을 뜨고 보니 응무소주이생기심 그리고 보살행이 원래 우주의 라이프 스타일인 겁니다. 햇님이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을 주고 있지만 햇님에게 <나>라는 게 있겠어요? 그냥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그 기운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지고한 행복이란 이 우주의 본래 행복, 즉 <나>가 사라져 너, 나의 구별이 없이 서로의 행복이 되는, 그러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선광 그리고 동사섭은 그러한 지고한 행복을 위한 세계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있을까? 불교적인 것도 채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의 현대적인 인문학도 섞여 있고 초 종교적인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미래에 어떤 영성 공부보다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물론 큰스님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십 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저는 미래의 사람들이 동사섭이 엄청난 명품이구나 하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선혜 동사섭의 주요 도구가 사유잖아요. 요새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교육수준이 높고, 그야말로 기본자질들이 높거든요. 남녀구분도 없고요. 그걸 바탕으로 공부 길로 탁탁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지혜를 얻는 일이 단시일 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사섭은 그야말로 짧은 시간에 걸어갈 방향에 대해 확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은 후에는 자기가 할 나름이지요.

마지막으로, 부부가 동사섭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말씀해주세요

선광 부부가 함께 배우면 인생관이나 생사관이 일치되어 좋습니다. 그러나 부부건 혼자 살건 인생의 최종적 목적, 삶의 의의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의 내려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절실함이 커지는데 대부분이 젊은 시절에 그런 것들을 놓치고 살지요. 저는 꼭 동사섭이 아니더라도 나름 그런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혜 이제는 신혼부부 행복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공부를 같이 하는 길동무 같아요. 우리 대화의 많은 것들은 동사섭 법리지요.

•

두 분 인연의 시작부터 돈망에 이르기까지, 도반으로서의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언제든 강릉으로 놀러 오라시던 선혜 님과 선광 님. 창밖으로 평평 내리던 함박눈, 타닥타닥 타오르던 벽난로, 온기를 유지해주던 코타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누었던 향기로운 시간을 기억합니다. 시간내어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혜 님, 선광 님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수심내레이션

수심명상산책

5요 명상

천하의 주인이요 보살행의 도구이며 밑거름인 이 일물一物은	정체
무한우주에 있는 유형무형, 유정무정 모든 존재들의 행복 해탈과 맑고 밝은 상생기운을 위하여, 이 일물의 전 존재, 전 에너지를 기起하여 전傳하오니 무량한 복덕이 향상向上되소서	대원
이에 안으로, <돈망명상-지족명상-비아명상-나지사명상-죽음명상>등의 주조세 主助細바라밀로 수심修心을 잘하여 마음천국 이루고,	수심
밖으로, 보는 눈을 바르게 하고, 보이는 모습을 바르게 하고, 잘 교류하는 등 화합을 잘하여 관계천국 이루며,	화합
나아가 핵심소임 수명소임, 보시-감사-사과-관용 등의 비소임을 잘 작선作善하여 세상천국 이루리라.	작선

주바라밀

그냥 있는다. 기초수를 그대로 수용한다. 아공법공我空法空이니 걸림 없이 그냥 깨어 있는 것이 할 일 전부이다.	돈망
---	----

조바라밀

한 생각 일으키니 범사 감사요, 지족이다. 혼이 감사요 몸이 감사요 가정의 모든 존재들이 감사요, 소속공동체의 모든 존재들이 감사요, 지역사회의 모든 존재들이 감사요, 나라의 모든 존재들이 감사요, 지구의 모든 존재들이 감사요, 나아가 공기와 물을 위시한 태양계 은하계 우주 등의 대자연이 감사요 지족이다.	지족
과거의 나는 이미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의 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으며 현재의 나는 잘나 무상이니 없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일물을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하는 보살행의 도구요 밑거름일 뿐이다.	비아
무아인 이 인물이 천하를 돌리본다. 그지없는 모든 것들 다 여여히 그러하는구나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그인에 그 과이니 그러하겠지, 굳이 가치론적으로 분다해도 절대긍정이다 감사요, 지족이다.	나지사
그것이 온다. 호흡이 멈추고 피돌이가 멈추며 사회적 역할이 끝난다. 간다. 걸림이 없다. 고요한 우주에 상생기운이 가득하고 애쓰지 않아도 돈망이다.	죽음

세바라밀

궁궁의 회향처는 보시요, 작선이다. 핵심소임核心所任, 수명소임隨名所任, 보시-감사-사과-관용 등의 비소임非所任을 그지없이 작선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작선
---	----

수심장

행복마을 동사섭 서울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수심장>은 함양 센터에서 진행되는 일반과정을 2회로 나누고 1/2이다. 그 나머지는 <화합장>이다. <수심장>은 말 그대로 '수심修心'에 집중한다. OP100의 원리, 지족행복론, 행복마중물, 초월명상, 돈망명상, 비아명상, 나지사명상, 죽음명상을 중심으로 3일 동안 주간을 진행한다.

행복이란 자신이 욕구하는 것을 소유(성취)하였을 때 생기는 긍정적 느낌을 말한다. 즉, [행복 = 소유 ÷ 욕구]인 것이다. 행복의 양은 소유가 많아질수록, 욕구가 적어질수록 커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소유의 양을 늘리고 욕구의 양을 줄일 것인가? 그것은 ① 구현 행복론 ② 지족 행복론 ③ 초월 행복론을 통해 그 방도를 탐구해야 한다. 행복 해탈에 이르는 동사섭의 방편(바라밀)은 주바라밀 하나(돈망명상)와 네 개의 조바라밀(지족명상, 비아명상, 나지사명상, 죽음명상)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 과정을 3일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바쁜 직장인에게는 단비 같은 수행과정이다. ○



修心

돈망 파지 점검용 보고서 작성 요령

○ 동사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돈망을 파지하는 일은 모든 동사섭 수련인들의 꿈입니다. 이에 돈망 파지를 점검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요령을 알려드리니 다음 요령에 의해 작성하여 이메일이나 편지 등으로 큰스님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가. 그냥 있는다.
나. 기초수를 그대로 수용한다.
다. 아공법공이니 걸림 없이 그냥 깨어 있는 것이 할 일 전부이다.

체험(명상) 방법을 따라 명상해 보고 그 체험을 기록합니다.

좋은가 이 명상을 따라 해보았더니 이리이러한 좋음이 있다는 것을 씁니다.

절대성 그 좋음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씁니다.

용해탈 절대성을 깨달은 다음,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밝혀 씁니다.

보내는 곳

이메일 주소
yongtah@dongsasub.org /
yongtah@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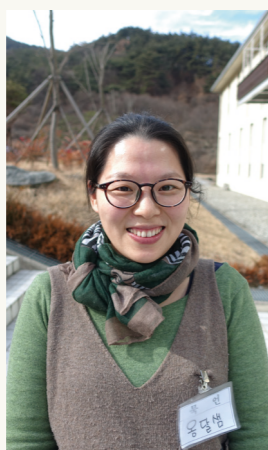
우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실곶길로 261-1
(죽곡리 1096번지)

행복마을 사무처
용타 큰스님께



우리 모두의
지고한 행복을 위한—

스마일 갤러리



2014년 행복마을 후원금 현황

2014년도

행복마을을 후원해주신 분들의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행복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금을 보내주신
기관단체와 개인 후원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기관단체 후원금액

520,000,000 원

개인회원 후원금액

93,176,360 원

성명	별칭	금액
강상중	범애	120,000
강을희	물	70,000
고성욱	꼬송	120,000
권복순	햇살	300,000
권부하		60,000
금주연	솔4	60,000
김경숙		100,000
김광현	헌터	120,000
김나현		100,000
김도문		130,000
김묘경		120,000
김미경		180,000
김민지	후리지아	120,000
김봉섭		120,000
김선옥		60,000
김소영	인애	600,000
김수령	자연	130,000
김수자		650,000
김순옥		120,000
김순옥	마니성	200,000
김시은	안개꽃	240,000
김양선	공명	60,000
김영금	올리브	120,000
김영서	소향	50,000
김영선		60,000
김영순	수니	100,000
김옥희	사랑	60,000
김완규	광조	60,000
김완유		120,000
김용수		100,000
김우중		60,000
김은숙	나무	120,000
김은화		65,000
김재현	현재	240,000
김정례	바다	120,000
김정현	능조	120,000
김종겸	순둥이	110,000
김종근		90,000
김진희		120,000
김창진	법진	600,000
김태순		120,000

성명	별칭	금액	성명	별칭	금액
김택수	보현	600,000	서형신		100,000
김푸름	구름	60,000	석재화	대선행	240,000
김필선	백제의미소	220,000	선광스님		60,000
김학수	파이터	130,000	설종국	길	130,000
김현숙	무등선	240,000	손병수		50,000
김현오		90,000	손혜정	세나	25,000
김현주	현정	360,000	송경옥	무현	70,000
김현주	현정	240,000	송인정	공덕	360,000
김혜경	깔깔	120,000	신경란		60,000
김혜진		60,000	신경미	비우기	60,000
김호석	기린	130,000	신상호	마블	360,000
김화선	향기	360,000	심무구		100,000
김효숙	청연	200,000	심성걸	대은	120,000
김효승	가람	50,000	안경철	자각	240,000
나양하	범웅	120,000	안동환	연담	600,000
남현태		120,000	안지현	메밀꽃	60,000
노정우	곰	600,000	안형영	풍경	200,000
노희영		80,000	양종국		260,000
도경숙	심신치유	60,000	엄희영		180,000
문영석	달녀	240,000	오병택	화백	80,000
문영석		20,000	오성연		50,000
문영호	산소	30,000	오순이		300,000
민상준	깨침	90,000	오승진		20,000
민인순		100,000	원정석	양치기	210,000
민정혜		120,000	유록수		600,000
박경순	밀알	70,000	유명희		50,000
박고은	아림	60,000	유민영		120,000
박기연	법귀스님	120,000	유소림		390,000
박기주	현공	600,000	유영화		50,000,000
박무서		300,000	유혜경		120,000
박삼숙	바우	120,000	윤재한	법정	360,000
박상현		240,000	윤희정	원경	240,000
박성웅		65,000	윤희주		130,000
박영술		20,000	이경숙	허공	650,000
박영애		120,000	이국진	바람	240,000
박재호	해룡	120,000	이덕희	산지기	120,000
박정애	산새	100,000	이명리	마하연	240,000
박한옥		60,000	이명숙		110,000
배정화	초록	650,000	이상희	흙	150,000
백경희	자광화	50,000	이선희		60,000
백향하	강물	360,000	이성수	시내	60,000

성명	별칭	금액	성명	별칭	금액
이성희	수연	120,000	정인수	무심	220,000
이수현		120,000	정해정		130,000
이순심	별	120,000	정현천	탈코	20,000
이영미		100,000	정홍주		120,000
이영신	언제나	120,000	정홍천	심망	120,000
이영숙	연당	360,000	조길상	하심	120,000
이영호	OKBoss	110,000	조미선	설산	50,000
이영희	하늘	130,000	조성천		2,200,000
이옥희		600,000	조영심		390,000
이윤정	바람처럼	60,000	조은주	선	240,000
이은실		200,000	조현숙	일지	240,000
이정란	지계	30,000	조현우	까만소	600,000
이정숙		120,000	주덕중	정.지.비	120,000
이준철		100,000	지원스님		180,000
이창효	하정	50,000	진명호		20,000
이태립	자황	120,000	진소자		270,000
이태운		600,000	진위향	보리향	120,000
이태희	빅맥	240,000	진정신	달빛바다	120,000
이필규		120,000	최진	도안	600,000
이혜영	연두	100,000	최광정		20,000
이혜정	무아	250,000	최예수	열매	600,000
이혜진		20,000	최은자		60,000
이호영	미르	120,000	최정은	응달쌈	240,000
이호준	허공	500,000	최정화		360,000
이화자	공심	100,000	최환채	일우	240,000
임지영	반야	60,000	한명화	혜주	100,000
장보정	별	70,000	한부미자		2,201,360
장왕희	광장	140,000	한은미	서은심	150,000
장종민	아침햇살	120,000	한지연	의미부여	300,000
장철수	무진	130,000	한형희	쌍글	120,000
장혜정	세음	50,000	함성욱	심지	30,000
전광현		2,200,000	허정현		110,000
전윤정		100,000	형운스님		240,000
전준모	마하	140,000	혜무스님		270,000
정경희	환희	100,000	홍영주	한그루	100,000
정도진		120,000	홍옥순		300,000
정명순	웃음소리	120,000	황우성		360,000
정병주	자훈	1,320,000			
정우용	진수	360,000			
정원택	해	600,000			
정은주	오매실	70,000		계	93,176,370